

Hee

경이

이런저런 남다른 한 여성은 어느 순간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  
 그리고 그렇게 몸도 마음도 아픈데 어떤 건지 모르는 시간이 흘러갔다.

고. 상처가 흉터로 남지 않게 잘 마무리해 주어야 하지만  
 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억지 미소를 차이보지만

업을 시작했다. 딸의 출가로 인한 허전한 마음, 노안으로  
 짜증, 얼마 전까지 다녔던 직장으로서 활동에서 벗어난  
 이 없어 못했던 사진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무엇도  
 내 모습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속마음 털어버려야 했다

보고 출기한 딸의 빈방에 누워도 보고, 힘들어진 여인숙,  
 를 놓아 거칠게 표현해보았다. 자신의 실의 형태를 실재로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을 매체로 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진은 오로지 내 삶의 활력소이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을 했다. 나의 예술세계, 한순 거다 들고 건네내면 이거를 수

기협회, 군포시부, 지부장, 역일  
 의 한국사진작가협회, 다매체아트부와 부위원장

회예술대전, 동산2018  
 수상

사진 전시회, 2017년  
 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시부, 50여개는, 연1회, 2017  
 / 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시부, 정기전, 2016~18  
 ~18) / 경기포토포스트를, 2015~17  
 ~2014) / 연가정연구회, 회원전, 1994~2003

가을, 796호, 2013호  
 연락처, 010-9627-1341



# 새로운 미적세계를 추구한다

## 군포예술상수상자 성주희

상을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우면서도 기쁜 일

2021년 군포 예술상 수상자 성주희 작가를 만났다. 예술상 수상 축하의 말을 건네자 상을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우면서도 기쁜 일이라는 담담한 어조의 대답이 돌아왔다. 성주희 작가는 군포예총의 8개 지부 중 가장 늦게 출범(2015년)한 (사)한국사진작가협회군포지부 초대부회장의 짧은 임기를 이어 2015년 7월 2대 지부장을 역임하며 지부창단 초기를 이끌어 왔다. 사진에 입문한 지 40여 년이 되었다는 작가는 일상, 사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추구하는 작품세계 등을 조근조근 진지한 어조로 풀어나갔다.

### 일상

대개의 주부가 그러하듯 평소에는 식사 준비,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수시로 작품 촬영, 작품 선정, 보정 작업 같은 일과,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군포시협 감사일을 맡고 있는데, 팬데믹시대라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작년에 태어난 손주들을 보러 가는

데, 딸들이 어린 손자들과 함께 집 밖을 못 나가니 딸들을 위해 반찬도 해 나르고 이전보다 더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은 가족 이외에는 가까운 지인들도 못 만나고 주로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약간의 우울감도 느껴지고 의욕도 떨어지기에 지금은 시간만 나면 카메라를 챙겨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을 찾아 다닙니다.

### 20대 초반 오빠의 캐논 G3 카메라를 빌려 시작한 사진공부

제가 20대 초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빠네 집에 있었는데, 오빠가 캐논 G3라는 카메라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카메라를 빌려 필름을 넣고, 사진 잘 찍는 방법이라는 책을 사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모델이 필요해서 여자 조카를 데리고 버스 타고 북한산 계곡으로 갔지요. 아이가 물놀이할 수 있을 만큼 돌로 계곡물을 막고 나서 조카에게 물놀이하라고 하면 조카는 침범거리며 신나서 놀았어요. 조카가 그렇게 신나게 노는 동안 저는 책을 펼쳐놓고 아이를 모델로 사



진을 찍었어요. 계곡을 오르기 전에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김밥 음료수 같은 것을 사서 중간중간 먹어가며 조카도 저도 행복하게 지내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40여 년 전인데, 어디 배울 데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책을 보고 조카를 모델로 테스트하고, 찍은 사진을 사진관에서 현상하고 인화하면서 배웠어요. 질문이 많은 나를 귀찮다 하지 않고 잘 설명해 주신 그때 사진관 사장님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찍는 것은 스냅사진 정도잖아요. 그때는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찍고 싶고,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제가 25살에 결혼했는데, 스물네 살 즈음 남대문 쪽에 현대사진 학원이라는 전문적인 사진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퇴근 시간이 정해져서 잘 지켜지고 있지만, 그때는 근무시간도 길지만, 퇴근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진학원 비용도 내가 받는 월급의 반을 내야 해서 시도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죠.

### 본격적인 사진공부를 하기 시작한 30대

결혼하고 나서 30대에 본격적으로 사진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창시절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이것저것 촬영을 했지요. 제가 젊었을 시절에는 결혼한 여자가, 더구나 어린 자녀까지 있는 여자가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란 어려운 시기였죠. 1990년도 초 남편이 부산공항으로 발령을 받아 부산에 내려가 살면서 우연히 최부길 선생을 만나 본격적으로 사진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3년 후인 1993년도 말에 군포시로 올라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자면 밖으로 많이 나가야 하는데, 남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촬영을 할 수 없었죠. 다행히

저는 남편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다른 분들보다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공부하면 할수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4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친구대학 영상미디어 학과에 입학하여 체계적으로 사진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공부했어요. 제가 한참 촬영을 하던 시기에는, 사회생활이나 예술활동이나 밖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새벽에 촬영하러 가면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나간다는 것을 같이 사진 작업하는 남자 동료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외조가 특별해 보이는 시절이어서 그런지, 지금 90세가 넘으신 김병련선생께서 수업시간에 선생의 제자들에게 저의 남편의 외조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 직업인이 되다

사진작가가 되고 전공공부도 하고 기능사 자격증도 따며 돈 쓰는 일만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흔아홉 살이 되었을 때, 이제 곧 손이 되는구나 하는 자각이 들더라고요. 도전하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취직을 했어요. 직업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어린 노릇을 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이 생기더군요. 모범적으로 생활해야 할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연하게 대처 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나 스스로 좀 모자라지 않은가 하는 자책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어려움 안에서도 직업인으로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지요. 지금도 가끔 전화를 하는 젊은 팀원이 있는데, 제가 롤모델이었다고 하





더군요. 저의 노력과 진심이 통한 것 같아 뿌듯하죠. 제가 취직할 때는 일을 배워 저도 스튜디오 사업을 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하는 걸 보면서 그냥 작가로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기로 했어요.

### 경기도 향토작가로 선정

경기도 향토작가로 선정된 것은 지금까지 제가 받은 상 중에서 가장 행복한 상이라 생각해요. 일 년 동안 작업 해서 도전했지만 떨어졌어요. 다음해에 공모작업을 준비 하면서 제 내면의 세계를 어렵게 표현하느라 머릿속으로 24시간 작품을 생각하며 지냈어요.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당선 되었을 때 누군가 나의 내면의 세계를 읽어 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자신감이 생기고 저 스스로도 나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 경기도 여성작가회 결성

제가 제7회 경기도 향토작가로 선정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도 향토작가 수상자들의 모임이 없었어요. 관계자 분들과 상의해서 경기도 여성작가회라는 모임을 창립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전시장 투어를 하고, 회원들이 각자 본인의 작품을 리뷰하고 조언하면서 자기 세계가 담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고 있지요. 이런 모임이 서로의 작품세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2020년에 안산 예술의 전당에서 창립 전시를 했어요.

### 나의 작품세계를 표현한다면



나는 생각이 많아서인지 난해하고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와도 같은 추상적 작품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된 이미지로 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감각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작업을 하지요. 모호하고 환상적이고 회화적인 작품이라고 할까요.

### 존경하는 작가

1982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도의 외로움과 평화를 담는데 열정과 영혼을 모두 바친 김영갑 사진작가입니다. 1982년부터 제주에 정착해 20년 동안 사진 작업을 하다 루게릭 병으로 사망하신 분인데, 성실한 수도자와도 같이 그는 자신의 일상적 즐거움을 오로지 사진을 찍기 위한 시간으로 조율해 나갔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사진만을 위해 자신의 감정이 흐르기를 바랐던 분이고 사진 철학으로 “나무는 열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로버트 프랭크의 어록 중에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people look at my pictures I want them to feel the way they do when they want to read a line of a poem twice. (나는 사람들이 내 사진을 대할 때 시의 한 줄 한 줄을 되뇌이면서 읽을 때처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저 또한 작품을 발표할 때 관객이 내 사진을 보고 작가의 생각, 감정, 시각들을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 앞으로의 작품 생활과 사진예술에 대한 생각

사진은 빛의 예술입니다. 사진에서의 표현은 앵글과 프레임의 선택과 조리개 수치와 셔터 속도 선택을 통한 밝기와 동감 그리고 피사계 심도를 조절하는 것이지요.

사진 이외에도 소통과 표현의 매체는 많이 있잖아요. 회화, 영화, 소설, 시, 음악 등이 모두 예술가들의 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하나가 사진이죠. 사진은 현대예술에서 가장 위력적이고 각광 받는 표현 매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진작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사고력도 필요해요. 그것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적 감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사진작품을 제작하려면 열려있는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고 봅니다. 주제가 정해지면 일관된 표현방법과 형식으

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작가는 표현대상이 달라져도 항상 자기의 색깔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대상에 따라 표현방법과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를 표현방법과 형식에 반영하는 것이죠. 상황이 달라져도 자기만의 개성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추구하는 작품세계

바닥이나 벽 모퉁이 등에서 내가 촬영한 작품의 목적이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을 다른 어떤 것(감정, 메카니즘, 빛)을 넣어 내 안의 생각으로 재해석해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 작품은 또 하나의 세계가 되고 평범한 존재가 사물과 만나 새로운 미적 세계를 만드는 것을 추구합니다.

### 사진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초기에는 주변 지인들의 약혼, 결혼, 칠순 사진 등 찍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인데, 지금은 제가 촬영한 작품을 발표할 때와 작품이 좋다는 평가를 들었을 때가 행복하죠. 특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을 보며 제가 느낀 것을 그분들도 느껴 줄 때, 공감이라 그러죠. 그런 순간이 작가로서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 사진작업은 언제까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해야지요. 지금 제 서재방에는 저의 작품이나 그동안 모아놓은 사진에 관한 책을,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하라는 남편의 타박을 받아가며 끌어안고 있어요. 이젠 제가 나이 들어 작품 활동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들어 가는 꽃의 모습이 안쓰러워 꽃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어 시작했다는 꽃에 대한 그녀의 작업은 꽃을 버리는 대신 얼렸다. 투명한 물과 함께 얼린 꽃은 다시 태어난 새 생명처럼 보였다. 물 위에 띄워놓은 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물결에 의해 움직여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물과 얼음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초상화를 만들었다. 냉동실에서 꺼낸 꽃을 상온에 한 시간 정도 두면 얼었던 꽃에서 생기는 물의 입자를 생기라고 표현하는 작가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 잠자는 내면을 일깨우는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성주희 작가는 끊임없이 사유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더불어 사유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팬데믹 시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작품에 녹여 2022년 새해 벽두부터 바쁜 일정을 보낸다. 2022년 1월 1일~30일 평택호 예술관 전시실에서 '삶도 여행처럼'이라는 주제로, 2022년 1월 16일~22일 인사동 갤러리 강호에서 '이음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단체전을 한다. 2022년 3월 17일부터 인사동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개인전 준비로 바쁜 성주희 작가의 발걸음에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대담 및 글 이진옥







# 문화예술은 복지입니다

## 이길호 시의원

2021년 제18회 군포예인예술제에서 예술공로상을 수상한 이길호 시의원. 항상 선선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 의원은, 자주 군포문화예술회관을 찾아 공연을 감상하기도 하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후원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담아 군포예총에서 전달한 공로상 수상 소감과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그의 소신을 듣기 위해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18회 군포예인예술제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비대면으로 시상식을 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았었죠. 먼저 수상 소감 한마디 들으면서 이야기를 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하죠. 되돌아보면 군포시 문화예술의 발전 및 예술인 복지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생각만큼 많은 일을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을 받음과 동시에 또 무거운 짐도 같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함께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간 의원님께서 군포의 문화예술계 혹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특별히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평소 저의 지론이기도 한데요, 문화예술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정신적인 치유를 해준다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문화나 예술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문화예술계나 예술인들의 어려운 여건들을 좀 더 좋게 해드린다면,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좋게 쓰여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화예술도 일종의 복지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나 위로 즉, 물질적인 복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복지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꼭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의 복지도 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복지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깊이 공감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몇 년째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어렵지만 특히 관객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해야 되는 예술인들에게는 치명적이고 타격이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관내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존에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나 시행사가 많이 취소되면서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이 많이 축소됐던 건 사실이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다행히도 군포시의 문화예술회관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필수적인 공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시에 비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존의 예산안이 그대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 된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공연 방식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줌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한 공연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구요. 이렇게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점차 증액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가져온 변화중의 하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좀 더 빨리 돌입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생활 속에서 비대면이 필요하다보니 일반인에게는 생소했던 줌을 통한 회의나 강의, 관객 없는 온라인 공연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예술계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데 익숙해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래사회로의 진입이 좀 더 가속화 된 느낌입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 이런 저런 방안들을 찾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일반인들의 삶속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보자면, 의원님을 보면 정치인이라는 어떤 전형적인 느낌보다는 좀 편안하고 소탈한 이미지신데요, 정치 쪽에 입문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아마 대다수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막연히 정치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현재의 지역구가 제 고향입니다. 구체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정치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에게 잘 맞는 분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하면서 배우게 되죠.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또 좋은 방향인가를 배워가면서 체득을 하는 건데, 저도 4년 의정 활동을 했고, 4년은 쉬었고 다시 이번 4년차 의정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이 길로 들어서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잘 안 맞거나 하기 싫다고 느끼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삶에서는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나와 참 잘 맞는 것 같고, 이 일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셨다는 게 참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에 의정 생활 중 보람 있는 일도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자랑 같지만 도합 8년 의정 활동하면서 각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불편한 점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이라면 용호초등학교 옆에 옥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인데 경로당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단지에 경로당이 있지만 그분들은 아파트 주민이 아니어서 그곳을 이용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지역에는 법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사시는 지역이라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벌써 십 수 년째 그 지역 어르신들이 요청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그러던 걸 제가 2019년도에 조례를 새로 개정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단독주택지역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설치 근거가 없었는데, 조례에 문구를 삽입 해서 단독주택지역에도 경로당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올해 2022년도 연초에 옥천마을에 경로당이 개설 됐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숙원사업이 해결이 된 거네요. 정말 그분들에게 중요한 일을 해주셨어요.**

꼭아보자면 저의 의정활동 중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의원님은 군포가 고향이시고 또 군포초등학교를 나오셨죠. 지금은 군포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구요. 군포에서는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학교이고 동문 중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얽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없을까요?**

이제는 사실 원주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의 위로 20여년, 아래로 10~20년 정도 분들, 그 사이가 옛날 군포의 정취를 느끼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분들은 많이 돌아가셨고 이후 세대들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예전의 군포나 군포초등학교라는 것에서 정서적으로 좀 분리된 세대죠. 원주민이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도 줄어가고 그 개념은 이제 많이 희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라고 봅니다. 군포가 원주민들만의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시민들의 도시가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이죠. 원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이젠 새로 오신 군포 시민들이 새롭게 꾸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원주민들은 옛 고향이 어느 도시 못지않게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길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 초기에는 베드타운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이주해온 분들이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이사 나가고 하면서 정주의 식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초창기 입주 주민들이 20년 이상 살면서 제2의 고향처럼 느끼고 새로운 원주민이 되어가는 그런 경향도 생기는 것 같아요.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았는데, 군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수리산을 비롯한 생태환경을 꼽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 환경이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군포시의 문화예술 현황이 타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본 인프라는 어느 도시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인프라를 채워가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색을 해나가야 될텐데, 그런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가 따라주어야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연후에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예술인들은 상위 몇 %를 제외하고,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예술행위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행정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예술인 스스로에게도 요구되는 어떤 자세나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인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건 쉽지 않고 그걸 요구한다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화예술이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연도 좀 늘리고 무료 공연을 해서 시민들이 좀 다수가 와서 그걸 즐겼으면 합니다. 물론 선거법도 문제가 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문화예술예산도 복지의 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술인에 대한 복지도 포함을 시키고 해서 좀 더 확대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여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반가워 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공적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시다시피 서류라든지 지원자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서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효율을 높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국가 지원금은 국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이 있을 테고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은 지자체에서 예술 단체와 협의해서 자격요건을 합의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군포예총에서 생각하는 예술인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서로 맞으면 그게 지원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전업 예술인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일을 겸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런 부분들은 예총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세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마련하셔서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합의가 되면 주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분야가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사실 문화예술의 문외한입니다. 미술을 보는 눈도 없고요. 주로 음악공연 쪽을 자주 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뭐 음악에 대해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잠시 일상을 잊고 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 듣는다면 좋겠지만, 우선은 들어서 좋고 편해지고, 다시 접하고 싶고 그 정도만 해도 애호가라고 할 수 있죠. 의정생활에 워낙 바쁘시니까 자주 책과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내 삶에서 생각나는 한 권의 책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떤 책을 읽고 감명 받아서 인생이 변했다 정도의 책은 없습니다(웃음). 하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사실은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나 환경문제, 최근에는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보고 있죠. 그 밖에도 경제분야, 사회분야, 복지분야 쪽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려고 해요. 이 일이 바쁠 때는 무척 바쁘지만 또 한가할 때도 많거든요. (실제로 인터뷰하는 사무실 소파 옆에는 손닿는 곳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면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한가하실 때 여가를 보내는 취미나 그런 건 있으세요?**

저는 바둑을 좋아해요. 시간 날 때 인터넷 바둑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실력을 물으신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동네에서 조금 둘 줄 아는 그런 정도지요. 의정활동 하면서 다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수시로 시민분들도 만나 봐야 하고 하다 보니 시간을 많이 들이는 여가활동을 하기는 어렵죠. 잠깐씩 짬을 내어 하기에는 바둑이 참 좋습니다.

**평소에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시나요?**

주로 민원 해결해드리면서 관계가 끈끈해져요. 저는 민원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끝까지 가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죠. 그런 것에 감명을 받으시더라고요. 다수의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저를 많이 지지해주시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될 수 있는 건 될 때까지 해드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정동에 재건축하는 곳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안양 시청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서 최근에 다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공무원들은 사실은 바쁘기도 하고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려고 하질 않아요. 하지만 그런 한계지점에서 계속 방법을 찾다 보면 해결점이 생겨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법 체제 내에서 가능한 건데, 자체 내의 하위 개념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결해드리고 그렇게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지역 주민들과 하고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넓고 얕게'가 아니고 저는 좀 '깊고 좁게' 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가시면서 어떤 포부라거나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신지요.**

정치는 사람들이야 다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속한 지역의 시민들이 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큰 바람이죠. 먹을 것 많아 좋고, 집 걱정 없고, 하는 일 잘 되고, 그래서 내일이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삶.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 지금 사람들이 자꾸 돈돈돈 하는 건 내일이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왜 내일이 오는 걸 불안해하겠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계속 현실에서 안달복달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뺏으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삶. 내일이 와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하면서도 철학이 담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

**금 지역에 대한 바람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군포의 문화예술계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군포도 아시다시피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고, 2022년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하는데 그것을 채워가는 주체들이 있단 말이죠. 문화예술인과 문화관련 종사자들이 분분하고 집행부의 정책 목표, 그리고 시민이 세 요소가 합쳐져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선 시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여건 조성하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주고, 문화예술인들은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생산을 해내고,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그 문화 콘텐츠를 정말 흡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가장 최종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내에서 또 예술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을 시민들이 접하면서 향상된 삶을 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복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 주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생활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처럼 군포시의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후원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대담 및 글 최남희



#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삼베꽃으로 피어나다

## 배선훈 작가



### 오빠의 스케치북 속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

중학생인 사촌오빠의 책가방에서 나온 그림은 여덟 살의 선한이 생전 처음 보는 그림이었다. 멋있었다. 선의 흐름도 그렸고 색감도 남달랐다.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칠장리 칠장사라는 절이 있는 마을에 살던 소녀는 그 오빠처럼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선한의 할아버지는 절을 짓고 스님이 되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절집 아이로 자라며 산과 들에 핀 꽃을 그렸고 칠남매나 되는 형제들 틈에서 언니 오빠의 스케치북을 들춰보며 막연히 화가의 꿈을 키웠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선한의 아버지는 칠남매의 교육을 위해 처가가 있는 유성으로 이사를 했다. 엄마, 오빠와 선한이 먼저 유성에 가 자리를 잡고 차츰 식구가 다 옮겨 살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어요. 방학 때 우리집에 놀러온 중학생 오빠의 그림을 보고 그렸어요. 시골에서 볼 때 그 그림은 새로운 세계였어요. 나도 저렇게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따라했지요. 그래서인지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면 늘 칭찬을 받곤 했어요.”

배선훈 군포미술협회 지부장. 어렸을 적부터 이미 화가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정작 전공은 생물학이었다.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르며 학교 운영위원과 외식사업을 하면서도 한쪽 벽에는 늘 이젤을 세워놓았다. 그림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아서였다. 뒤늦게 흥대 대학원 평생학습과정을 이수하며 전공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그렸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을 시작으로 경기도 미술대전 특선 3회와 입선 1회, 대한민국 회화대상전 최우수상 등 화단에서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다. 배선훈 작가는 경기도 미술대전과 부산아트페어 초대작



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행주미술대전, 경기도 청소년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지내기도 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배선훈 작가의 그림에 대한 열정과 남다른 작품세계는 스무 번이 넘는 개인전을 통해 오롯이 드러난다.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구상과 비구상을 거쳐 추상으로 나아가는 배선훈 작가의 작품은 전통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발을 딛은 예술철학을 표현하고 있다. 대가들의 하나의 점으로 이뤄낸 작품을 보며 그 안에 담긴 무한의 세계를 알아보고 눈물이 글썽해진다는 배선훈 작가가 궁극에 도달하고 싶은 예술적 경지는 어떤 것일지 궁금해졌다. 그런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이사과 한국여성작가회, 열린화가 협회 자문위원으로 많은 일을 수행하며 2021년에는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군포미술협회 지부장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하였다.

### 찾아가는 미술관, 로드갤러리

2020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바꿔놓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전시공연예술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많은 예술가들이 창작품을 발표하지 못했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대면공연



은 전무한 상태로 겨우 공연영상물을 유튜브에 올리는 정도의 예술활동만 이어졌다.

올해 군포미술협회 지부장이 된 배선훈 작가는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와 228개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 사업인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을 돕고 지속 가능한 지역예술활성화를 위해 펼쳐진 이 사업의 추진은 참으로 고마웠다. 미술협회 회원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군포문화예술회관 공간을 활용한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일은 즐거운 작업이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쓰고 공간에 아름다움을 덧입히는 일을 시작으로 미술협회 정기전시회와 전국수리디자인 미술대전을 진행하였다. 배선훈 지부장은 수리디자인 미술대전의 뛰어난 수상작들이 도록으로만 소개되고 마는 것이 안타까워 군포의왕교육청과의 협의로 학교에 찾아가는 미술관을 열어 작품을 전시하였다. 수상작뿐만 아니라 미술협회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여 볼거리를 다채롭게 한 결과 학생들과 선생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학교가 우리 작품으로 채워져 너무 환하고 멋진 공간이 되었다고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네요. 학생들도 일부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림을 보며 한마디씩 한대요. 정말 찾아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진로박람회를 하기보다 학생들에게 다가가 직접 그림을 보여주고 화가의 꿈을 응원하는 일이 되니 보다 적극적인 진로활동이 된 것이다. 배선한 지부장은 올해는 부곡중앙초등학교, 모락중학교, 폴리텍고등학교 등 몇 학교에 제한되었지만 내년에는 더욱 많은 학교를 찾아가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몇 통의 전화가 오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군포도시공사에서 미술관을 열었던 MOU체결 내용도 있었다. 학교와 관공서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술활동으로 초막골, 반월호수, 군포역 등에서 찾아가는 거리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힐링을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군포역 앞에서 늘 친구들을 만난다는 어느 노인은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들여다보며 “참 좋다, 잘 그렸다”를 연발했고 반월호수 근처 카페주인들도 그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마련해줘 고맙다고 했다.

미술협회 회원들에게도 이 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공들여 만든 작품이 한 번의 전시에 그쳐 작품을 사장시키기보다 좀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작품세계를 알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늘 그렇듯 부족한 예산으로 협회 회원들의 수고로움에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작품을 설치하고 철거할 때 회원들은 계속 봉사만 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힘들게 작품을 창작하고 대관료를 지불하고 도록을 만들고 나면 늘 부족한 형편이다. 언제까지 재능기부만 할 것인가. 배선한 지부장은 재임기간 정기전시회나 예인예술제 거리전시회 때 소정이나마 작가비를 받게하고 싶다고 했다. 누구나 예술작품을 향유하는 데에는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술협회 지부장이 되고 나서 배선한 작가에게는 또 한가지 역점사업이 생겼다. 군포시 및 군포문화재단과의 협조로 지역 곳곳에 로드갤러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몇십억씩 드는 예산으로 대형전시관을 짓기보다는 사람 사이로 들어가는 예술테마관을 만드는 것으로 특히 군포는 수리산의 자연을 이용하거나 골목골목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가능하다. 예술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 문턱을 낮추고



산책길에, 학교가는 길에 그림이나 사진, 시화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그림을 보려면 반드시 미술관에 가야하고 몇 호짜리 액자 안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 또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군포문화예술회관 뒤 수리산 가로수길 상인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배선한 작가는 그곳을 예술의 거리로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작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며 거리에는 자연스럽게 화실과 도자공방, 목공예, 손뜨개, 보석공방 등이 생겼다. 2021년에 지주 간판을 내걸고 각 상점마다 쇼윈도와 조명 등을 바꾸고 있는데 좀더 정비된 예술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죽은 이들을 위한 염(殮)봉사 25년, 예술작품으로 탄생

배선한 작가는 산본성당 연령회에서 오랫동안 죽은 이들을 위한 염(殮) 봉사를 해왔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집에서 병환으로 돌아가셨다. 성당에서 나와 장례절차를 도와주고 염을 해 주어 큰일을 치르는데 도움이 되었다. 배선한 작가는 묵묵히 봉사하는 그들이 천사 같았다. 그가 성당에 입문하기 전의 일이다. 영세를 받고 남들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통해 봉사하고 싶다는 기도를 한 결과 산본성당에 영안실이 만들어지고 서른여덟이라는 젊은 나이에 함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돕는 정도였으나 요즘은 직접 염을 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배선한 작가가 손수 염을 해서 보내드린 영혼이 일년에 70~80여명. 지금까지 천여명 정도를 보내드렸다. 성당 지하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그분들이 나가면 청소를 하고 마무리한다. 시신을 만지고 염을 하는 것은 쉽지 않

지만 돌아가신 분은 말씀이 없으니 무섭지 않다고 했다 ‘예쁜 모습으로 보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올해는 산본성당에서 봉사자상을 받기도 했다.

예술과 봉사에는 접점이 있다. 예술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듯 봉사 또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 다른 이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같다. 모두 이타심을 발로인 것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배선훈 작가는 장례식에 쓰였던 삼베 조각을 모아 놀라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냈다. 돌아가신 분들이 주고 가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20여 년 동안 모은 것을 엮어 꽃을 만들었다. 그분들이 좋은 데 가기를 바라며 꽃잎 하나하나를 만들고 붙여 한송이 한송이 모아 수백 송이가 되는 대작을 완성했다. 흰색, 노란색, 누렇게 바랜 색 등 남겨진 시기가 달라 다양한 색깔을 연출한 삼베꽃은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배선훈 작가가 믿는 백(백그라운드)이 있다.

“내가 마지막 길에 엮을 해드린 분들이 나를 해하겠나 싶어요. 그분들의 영혼이 나를 잘 돌봐준다고 하는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당당하게 살고자 하지요.”

수백 송이 삼베꽃 앞에서 환하게 웃는 배선훈 작가, 그가 곧 천사이자 예술가였다.

### 이제, 부활의 세계를 꿈꾸다

삼베 작업을 통해 궁극에 도달한 예술의 지점은 아멘이었다. 그는 부활의 세계로 거듭날 것이다. 화가로서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는 중이다. 화가로서의 정체성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작가는 그림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배선훈 작가의 앞으로의 작품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 삶도 치열하게 살고 그림도 열심히 그리다 보니 이만큼의 지점에 와 있다며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진다 싶으면 말없이 현대미술관을 찾는다고 한다. 또 작가들의 작업실에 가서 영감을 얻기도 하는데 하루 여덟 시간을 화폭 앞에 있는 원로 선배작가에게서 자신을 점검하며 힘을 얻고 돌아오면 다시 그리고 싶은 열정이 샘솟는다는 말을 덧붙였다. “큰 작품을 만들거나 작업에 온 힘을 쏟고 나면 휴지기가 필요해요. 어느 날 들에 앉아 들풀도 그리고 어반스케치도 하며 ‘내가 뭘 그렇게 힘들게 했나.’ 등의 생각을 하면서 쉬고 나면 또다시 큰 작품을 할 힘을 얻게 되더군요.”

부활의 세계를 꿈꾸는 화가로서, 군포미술협회 지부장으로서의 배선훈 작가의 예술세계가 어떤 빛과 색채로 채워질지 스물한 번째의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담 및 글 오은희







# 음악의 선율을 사랑하는 일

## 황일화 음악협회 지부장

곱슬머리가 유독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군포음악협회 트럼본 연주자이자 윈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황일화 지부장이다. 유연한 느낌의 곱슬머리가 실은 고집과 똑심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2018년 시작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황일화 지부장과 겨울이 시작되는 초입에 만났다.

강원도 동해가 고향인 황일화 연주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시가를 행진하는 관악대를 보고 연주자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4학년 때 관악대의 맨 앞에 있던 트럼본에 꽂혀 무작정 하고 싶다고 찾아갔지만 선생님이 너무 작다고 5학년이 되면 오라고 했다. 주먹을 입에 댄 후 팔을 접었다 폈다 하며 트럼본을 연주하는 모습은 정말 멋있었다. 5학년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곧 전학을 가게 되어 시작할 수 없었다. 뭐든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가 했다. 다행히 중학교에 올라가 음악선생님이 담임을 맡게 되면서 호른을 접하게 되었다. 호른의 그 명징하고 밝은 소리는 그를 금방 매료시켰다. 그리고 여러 콩쿠르 수상을 거치면서 트럼본을 연주하는 예술인이 되었다. 서울 오케스트라 단원을 거쳐 군포필하모니의 단원이 되어 군포로 온 지 어언 이십여 년. 연주자의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이제는 호떡이 출가한 딸의 아기 태명으로 호랑이해에 딱하니 찾아온 보배를 기다리는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평온함에 이르렀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제대로 된 공연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는 차선책으로 군포음악협회 회원들의 공연을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황일화 지부장과 나눈 군포음악협회와 윈드오케스트라 이야기, 음악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면모에 대해 서술해 본다.

**2018년 음악협회 지부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후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임기 내 음악협회의 활동 및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다면 어떤 활동인가요?**

취임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좀 더 많은 회원들 확보한 것입니다. 취임 당시 30여명이었던 회원 수를 70명 가까이 확보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주자들과 함께 좀더 풍성한 연주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많이 하지 못했던 시 보조금 사업과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 시작하였고, 군포시뿐 아니라 경기도 공모사업도 지원하여 선정되어서 음악협회 회원들과 함께 공연활동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문화의 날 공연”, “한여름 야외음악회”, “누구나 1인 1악기” 등이 있습니다.

**음악협회 창립과 함께 시작한 수리음악콩쿠르가 27회째를 맞은 유서 깊은 대회가 되었습니다. 2018, 2019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또 두 번의 행사를 치르셨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수리콩쿠르는 모든 경연을 공개로 진행하며, 경연 후 10~15분의 신속한 결과 발표를 함으로써 공정하기로 평평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때문에 우려한 대로 참가자가 다소 줄었습니다. 콩쿠르를 멈출 수는 없었기에 진행자, 참가자를 위하여 20년과 21년에는 비대면으로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더 심각해진 코로나로 인해 경연을 연기하게 되어, 장소 또한 매년 군포문화예술화관에서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포 수리산 상상마을을 대관하여 개최를 진행하였지만 전문 공연장이 아니어서 참가자들한테 미안함과 진행자로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봉사, 참여자들의 관심으로 콩쿠르를 훌륭히 치러냄으로써 음악협회 회원들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대상 수상자에게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추가로 수여하게 되었고, 2020년부터는 본선 경연을 “군포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진행함으로써 참가자에게 협연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수리음악 콩쿠르의 명성이 음악인 및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국제적 명성의 수리음악콩쿠르로 나아가**

**기 위해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리음악콩쿠르를 23회까지 훌륭하게 진행해주셨던 선배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동안 진행하면서 수리콩쿠르의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이 음악인들에게 인식되어 있기에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잡음 없고 매끄러운 진행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음악협회 회원들은 전문 업체 못지않은 탁월한 진행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프로페셔널한 진행이 참가자들에게 좋은 인상과 믿음을 주었고 그로 인해 지금의 수리음악 콩쿠르의 명성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수리음악콩쿠르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함과 탁월한 진행을 바탕으로, 먼저 현재 성악과 피아노 두 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는 콩쿠르를 다양한 파트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걸음으로 전공자가 많은 현악기 중 바이올린, 첼로 두 부문의 추가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많은 참가국은 어렵겠지만 3~4개국 정도라도 해외 참가자들을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윈드 오케스트라의 창립배경 및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2000년 초부터 군포 내 중학교, 고등학교의 관악부 운영으로 군포에 많은 관악 인구가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군포시에는 200여명의 졸업생과 전공생, 유학을 다녀온 전문 연주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귀한 음악인들을 지켜보면서 윈드오케스트라의 창단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군포 고등학교 음악교사인 안재찬 선생님과 함께 음악인에게는 무대를, 시민들에게는 음악의 기쁨을 드리고자 뜻을 모아 창단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3~4회의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음악협회 회원들과 함께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음악 행사와 콩쿠르를 운영하며 기억에 남는 참가자는 어느 분 일까요? 복수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연주가 생생하지만 그 중 애환이 가득했던 탈북민 연주자(아코디언 & 성악연주)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아프리카 연주자의 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21년 올해 음악협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또 음악협회 회원들의 소통 및 교류는 어떤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부장님이 협회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특별히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그 의미와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2021년 음악협회 특별한일은 회원이 70명 가까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젊은 음악인들이 많이 함께함으로써 군포음악협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들의 음악활동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회원들과의 소통은 2개월에 한 번씩 월례회 진행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했습니다.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매년 초막골 글램핑을 대여하여 단합대회 겸 회식을 했었습니다. 물론 최근 2년간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여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가서 회원들의 만남과 대면 공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포에서 음악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군포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군포시의 최근 정책 중 문화 도시 지정 준비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음악인으로서 문화도시 지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군포시의 문화예술 정책은 제 생각에 조금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군포시 관내에 많은 문화예술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공연은 빈약한 것이 군포시의 실정입니다. 전문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비도시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에 문화도시지정 확정 시, 군포시가 꼭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포시에서 문화도시의 지향점을 ‘사람’으로 설정했는데, 지정된다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음악인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과 다른 장르의 융합예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특별히 콜라보 하고 싶은 장르가 있으세요?**

저는 항상 공연을 기획단계에서 다양한 장르와 콜라보를 염두에 두고 기획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공연도 여러 가지 변신을 시도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함께 해보고 싶은 장르는 음악과 판타마임과의 콜라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문화예술 소외계층,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음악활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지부장님이 생각하는 음악의 효용은 무엇이라고 보시지요.**

많은 일반인들에게 연주 관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음악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악인들과 군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악은 예술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휴식이자 진정한 이웃의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선율의 서술하는 클래식 음악인 황일화 음악인으로 접어들게 된 것은 어린 시절 꿈이었던지요. 음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들려주세요.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나 음악이 있다면 어떤 것 인가요?**

초등학교 시절 시가행진을 하는 관악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악기들 중 트럼본을 동경하게 되었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중학교 입학 후, 마침 담임선생님이 관악부 지도 음악선생님이셔서 자연스럽게 특별활동을 관악부로 하게 되

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동경하던 트럼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서 더이상 트럼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이게도 고1 담임선생님도 음악선생님이셨습니다. 일반 대학 문과로 목표로 정했지만 관악부 선배들의 강권으로 관악부에 다시 발을 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취미 삼아 트럼본을 했었지만 음악선생님의 권유로 대학 주치의 콩쿠르에 나가 몇 번의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트럼본에 대한 저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담임선생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대학을 마치고 1990년 12월 독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귀국 후 군포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17년 동안 연주 생활과 대학 강의를 하고 현재는 음악협회 지부장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장르는 웅장한 교향곡을 좋아하고 대중음악도 좋아합니다.

**클래식 음악과 관객, 작곡가와 관객, 연주자와 관객 사이에 는 늘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간극을 좁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클래식음악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향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는 늘 간극이 존재합니다. 예술을 접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보고 듣는 사람이 자신의 감각으로 받아들이면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고 듣기에 편안한 음악부터 시작한다면 쉽게 접근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클래식도 자연스럽게 다가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음악은 어렵다는 편견이 있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교과서 음악여행 등의 수업을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시지요?**

순수음악도 예전에는 대중음악이고 춤곡이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중음악이라고 알고 있는 음악도 불과 100년이 안되었습니다. 재즈나 힙합 등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도 향후 100년 이후엔 클래식음악처럼 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 저는 본인이 느끼기에 편안하고 마음에 와닿는 음악을 시작으로 처음 접근하



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엄마 손에 이끌려 피아노 학원에 반강제적으로 다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일단 본인이 끌리는 음악을 많이 듣고 기회가 되면 다양한 악기도 배우라고 합니다. 탁월한 재능이 있다면 전공을 하여 음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친구 같은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게 된다고 얘기해줍니다.

**코로나 상황에 두 번의 겨울을 맞이할 텐데 개인적으로 코로나19는 황일화지부장님께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코로나19 이전에 학생과의 관악합주 등 신나는 음악활동을 지금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음악수업을 비대면 랜선으로 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집합금지 때문에 관객을 만날 수 없어 경제적으로도, 관객과의 관계에서도 상실감이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협회 공연과 수리콩쿠르도 비대면이라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자녀분들은 다 출가하거나 독립했는지요. 자녀들과 함께했던 일상과 지금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예술인 남편에 대해, 아빠에 대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응원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딸들은 둘 모두 결혼해서 출가시켰습니다. 가족이 단출해진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모일 수 없다는 게 더 섭섭하지 만 두 사위까지 늘어서 마음만은 든든합니다.

아내는 음악을 하는 저를 늘 응원합니다. 10여 년 전에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트럼본을 연주하는 순간의 제가 제일 멋지다고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은 시간이 될 때면 기꺼이 저의 연주를 감상하고 응원해 주는 관객입니다.

**음악활동을 하며 기억나는 에피소드, 공간, 심미적 경험,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 들려 주세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할 당시 소프라노 조수미씨와 공연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6개 도시 순회공연의 첫 도시는 수원이었는데 첫 공연이었기 때문인지 세계적 가수와의 공연이어서인지 무척 긴장하고 떨었습니다. 연주는 정신없이 있었지만 마지막 곡을 끝내는 순간에는 벅찬 감동과 뭉치

모를 짜릿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기억이, 쉽지만은 않았던 음악인으로 계속 살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음악인으로서 보람을 느끼거나 가슴이 뿌듯해짐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생각해 보면 시기에 따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의 전문연주인 일 때는 실수 없는 무대를 뿌듯해 했었고, 학교에서는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였고, 음악협회 일을 할 때는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연주하면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때가 참 좋았습니다.

**황일화 지부장님의 예술은 결국 음악을 통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악활동을 하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독주가 아닌 합주를 할 때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동료의 찰나의 실수를 덮어주고 다른 연주자의 연습시간과 실력과 최선의 노력을 믿어주면서 완벽한 앙상블을 만들어 냅니다. 연주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음악만큼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음악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요.**

개인적으로 음악은 직업으로 하기보다는 취미활동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공을 거치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연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음악이 직업이 될 때는 척박한 경제상황과 무대 위에서의 엄청난 스트레스로 즐겁고 행복해야 할 음악이 어깨를 짓누를 때가 많았습니다. 취미로 할 때와 비교해 보면 그 즐거움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황일화 지부장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만 본인이 멘토로 삼았던 분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분일까요?**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자 관악부 지도 선생님입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연주도 하시고 지도해주셨던 은사님입니다.

**황일화 지부장님께서 훗날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기억을 떠올려 재구성하고 싶으신가요? 즉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랄까, 가장 좋았던 시기를 이야기한다면 언제일까요, 지금일까요?**

열정적으로 음악공부를 하던 유학시절과, 귀국 직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할 때가 빛나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은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지금입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재구성한다고 해도 결국 이 길을 걷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예술인들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2년의 시간을 잘 보냈으니 22년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음악인은 관객 없는 연주를 했으며, 시민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음악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객 각자의 삶의 자리가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예술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예술인이 눈높이를 시민들에게 맞게 낮춰서

다가가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 여쭙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요. 이 이야기는 꼭 들려주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예술은 배고픈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술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술인들이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행정업무나 현실적인 예산 등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예술 활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사람들에게 힐링이고 즐거움이고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늘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예술을 고민하고 창작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일화 지부장님의 음악세계와 군포음악협회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및 글 오은희

